



市政新聞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19면)



송파의정연구회가 자원 재활용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있다.

송파의정연구회, 자원순환 모델 개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이승희)가 지난 1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65만 대도시 송파구의 자원 재사용·재활용 촉진정책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 기관으로부터 연구 방향과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받고자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승희 회장과 이희승 부회장을 비롯한 송파의정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수열 박사는 송파구의 자원순환 정책 현황과 연구 범위,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계획, 송파형 자원순환 정책 모델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

했다.

이번 연구는 현황·여건 분석, 우수사례 벤치마킹, 송파형 모델 개발, 제도·조례 개선방안 마련의 4단계로 진행한다. 특히 연구진은 공동주택과 단독·다세대주택,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송파구의 생활권별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단체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체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확대와 은퇴 숙련기술자,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연계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홍준성 기자